

# 전북 방문객 KTX 선호도 급증

### 익산역 212만명 55.5% 증가 전주역 102만명 55.4% 늘어 지역 경제 발전 기여 기대

전북도 방문시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KTX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이용객들의 비율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북지역 KTX 개통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이 발표한 '전라북도 K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 패턴 및 KTX 이용 특성 분석'에 따르면 호남 KTX 개통 이후,

일반철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KTX 이용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X 이용 외지인은 업무·출장 등의 목적으로 평균 141,000원을 도에서 교통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도의 주요 KTX 이용객 변화는 익산역의 경우 개통 전 136만명에서 개통 후 212만명으로 55.5%가 증가했고 전주역은 65만명에서 102만명으로 55.4%가 증가했다. 남원과 정읍 등에서도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북도 방문시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도 KTX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KTX 개통 이전

에는 일반열차(28%), 고속·시외버스(28%), 자가용(23%), KTX(22%) 순이었으나 개통 이후에는 1순위 선호 교통수단으로 KTX가 77%로 크게 상승하였고 자가용(9%), 일반열차(8%), 버스(8%)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들은 KTX 개통 및 노선 증가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KTX 이용 외지인들이 도에서 지출한 평균 금액(141,000원) 중 38%가 관광지 입장료, 관광료 및 선물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으로 지출됐으며 식음료비는 30%, 숙박비와 KTX요금을 제외한 교통비는 각각 1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KTX 개통 이후 이용객들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호남선 KTX의 개통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KTX를 이용해 도에 방문한 외지인들은 가족·친지·친구 방문 목적으로 KTX를 이용한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출장 목적이 34%, 관광/휴가 목적이 1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수 기자

#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한다

### 15일~5월 12일까지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영리활동 수행

전주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온두레공동체와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28일간 '2016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자금을 모으는 제도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는 하반기로 예정된 전국단위의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응모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시는 사회적기업과 공동체, 청년예비창업자 등 시민들의 자

발적인 대회 참여를 이끌어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을 다양화를 통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오는 7일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신청된 프로젝트 중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1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젝트 설계, 웹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펀딩 전략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예비) 사회적기업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 워크숍을 진행해 프로젝트 기획, 리워드 설계방법론, SNS 활용방법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 전략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전주시(예비)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에서 16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김영재기자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촉식. 지난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가운데)가 위원 위촉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주시,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배치

###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16곳 정기 순회 DB구축

전주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배치한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순회사서 2명을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배치해 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자리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순회사서는 울 연말까지 노송·평화꿈 등 공립 작은도서관 6곳과 서곡주공·위브어울림·호반꿈나래 등 사립 작은도서관 10곳 등 총 16개 작은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자료선정과 DB구축, 독서문화프로그램 지도, 운영자 실무교육 등 도서관 핵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자체 순회사서를 채용해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회사서 배치로 작은도서관을 통한 전주시민의 독서문화 생활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산도서관 사서열람팀(063-280-1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 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챙겨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재취업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근로자 송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사업주 최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직장을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오다 3개월 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한 뒤에도 실직상태인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로 총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가족이나 친구 통장으로 받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기자

# 전주시의회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경신 의원 선임

전주시의회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경신 의원(비례대표·사진)을 선임하고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전주시의회는 1일 결산검사 위원에 이 의원을 비롯하여 회계 및 재정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영재기자



# 전당포 맡긴 '8캐럿 다이아' 가짜로 슬쩍 바꿔치기

###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로 증거 확보 30대 검거

2억6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8캐럿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린 뒤 전당포 주인 몰래 다시 가짜 다이아몬드로 바꿔치기 한 30대 귀금속 도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8캐럿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린 뒤 큐빅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사기)로 귀금속 도매업자 A씨(39)를 구속했다. 캐럿(Carat)은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1캐럿의 무게는 0.2g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전당포 주인 B씨(54)로부터 8캐럿 다이아몬드(시가 2억 6000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큐빅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범행에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 24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전당포 주인 B씨를 만나 8캐럿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린 뒤 범행 당일 "발겨놓은 다이아몬드를 구



매할 사람을 찾았다"고 속여 전당포 주인을 불러냈다. 전당포 주인인 B씨는 "다이아몬드 구매자를 앞에서 만나 판매 한 뒤 돈을 모두 갖겠다"고 말한 뒤 다시 돌아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짜 다이아몬드를 바꿔치기 한 큐빅 모조품을 건네줬다. A씨의 대담한 사기극은 전당포 주인 B씨가 다이아몬드를 재검정하는 과정에서 큐빅 모조품으로 밝혀지면서 꼬리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전당포 주인 B씨를 상대로 이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루비, 진주, 사파이어 등 보석 60점을 B씨에게 맡긴 뒤 3억5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CBQ, 2% 부족한점이 있다면 귀히에게 날개를 달다!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를 성공의 날개를 달다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달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양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면접) 겸임교수  
·면접지도 권위자 호칭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스피치&리더십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저서: '35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의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면접지도,개인지도,주말반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